

4/1/18

설교 제목: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4: 1-12

- (롬 14: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 (롬 14: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절관주** 고전 10:25
- (롬 14: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절관주** 눅 18:9, 골 2:16
- (롬 14: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 (롬 14: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절관주** 갈 4:10
- (롬 14: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절관주** 고전 10:31
- (롬 14: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절관주** 갈 2:20, 빌 1:21, 벧전 4:2
- (롬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 (롬 14: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 (롬 14: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롬 14: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절관주** 사 45:23
- (롬 14:12)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며칠 전 제 face book 에 미션라이프에서 올린 글이 하나 올라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기독교 사학인 연세 대학교에 동문들이 기증한, 액운을 쫓는다는 '해태상'이 무려 3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며 연세 대학교 교정에 있는 해태상 사진을 찍어 첨부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옆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구절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올라 온 그 글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분분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식의 전당, 그것도 미션 스쿨에 미신적인 상징물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니 당장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태상은 그저 우리 민족의 문화재이니 그냥 놔두어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연세 대학교가 액운을 쫓을 목적으로 해태상을 세웠다면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동문이 기증한 조각품이라고 생각하고 세웠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돌 장식물일 뿐입니다.

자신의 몸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해태상이 무슨 힘이 있어 남의 액운을 쫓아 줍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렇다고 "지식의 전당에서 미신적인 상징물은 말도 안되니 당장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열내는 분들에게 "해태상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그들과 똑같이 열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해태상은 거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해태상을 철거한다고 해서 연세 대학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해태상이 미신적인 상징물이라고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열을 내는 분들이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니 요즈음 같은 세상에서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국적이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교육 수준이 다른 사람, 도덕 수준이 다른 사람, 믿음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자니 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크게 두 종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문제와 그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체이기에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여야 할, 진리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교회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는 별때같이 달려들어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WCC 등과 같은 에큐메니칼 단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 동성 연애 문제, 교단에서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교회 세습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성전 카펫을 무슨 색깔로 깔지, 야외 예배는 어디로 갈지, 친교는 밥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커피와 도넛으로 할지 등의 진리외의 문제들을 놓고는 목이 터지도록 언성을 높입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사항들을 가지고 초신자들과 시시비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롬 14: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란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성숙하지 못한 교인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이 내는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교우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너그럽게 받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를 다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롬 14: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롬 14: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초대 교회에서는 음식이 자주 다툼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에서 어떤 사람이란 음식에 대하여 자유할 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성숙하여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마태복음 15:1)'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지 얼마 안되어 유대교의 엄격한 음식 규례에 젖어 이를 계속 지키고자 하는 교인입니다.

당시 로마 신전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제사 때 바쳐졌던 고기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싼 값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교인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값이 싸니 사다 먹고 싶은데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음식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만히 보니 일부 믿음이 좋다는 자들이 아무런 꺼리낌없이 그 고기를 싼 값에 사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지 얼마 안되어 아직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초신자들은 그런 고기를 사먹어서 안된다고 완강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고기를 사먹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 그 고기를 사먹는다고 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더럽힐 수 있단 말인가?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아는 척한다고 속으로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신전 고기를 거부하는 초신자들은 세상에서 자신들만이 옳은 줄 알고 의기양양하여 먹는 자들의 큰 약점이라도 잡아낸 것처럼 그들을 큰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좀 당한 것도 있고 하니 이 참에 잘 걸렸다고 생각하며 갇아 주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경우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먹는 자'란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낸 헛것이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그냥 보통 고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먹지 않는 자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더럽혀진 고기이니 절대 먹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웃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옳은 양 생각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다 받으셨는데 왜 너네끼리 싸우느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비유로 말합니다.

(롬 14: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을 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종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면 종에 대해 아무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종이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다른 사람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 주인이 알아서 할 바입니다.

None of your business! Be quiet everybody!

그런데 그 일을 다룰 자격이 없는 자들이 왜 왈가왈부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됩니다.

우리를 판단할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2. 목적은 같아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은 서로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롬 14: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롬 14: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초대 교회에서 교인들간에 쟁점이 되는 것이 음식에 관한 문제와 함께 절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는 구약에 규정된 여러 절기들 즉 안식일, 매월 지키는 절기들, 일 년에 몇 차례 지키는 큰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합니다.

진리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롬 14: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롬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하되 반드시 '주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살아도 주인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하여 죽어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종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인되신 하나님만을 위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 기준은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내도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그 둘 중에 한 쪽은 이단입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흑백을 분명히 가려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리이외의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때에는 싸우거나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지상 교회 중 사소한 충돌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는 세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 14: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롬 14: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롬 14:12)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입법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판단을 받을 자'이지 '판단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입법자와 판단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도대체 너희가 누구관대 내 자리를 차지하려 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뜻밖에도 임금님의 아들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 잔치에 참석하게 된 하객들입니다.

예복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 잔치 측에서 내준 것을 받아 입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것은 정말 보기에 민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넘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워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으며 교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모두 이렇게 교인이 된 처지이면서 내 믿음이 좀 더 낫다고 자신보다 좀 못한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그 형제를 세우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목적은 같아도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은 죄를 자백할 죄인들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 형제를 심판하는 재판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 잘난 바리새인들의 집단'이 아니라 '용서받아 감사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집'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교인이 좀 연약한 말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